

鎭川 太和四年銘 磨崖佛立像

鄭 永 鎬

충청북도 鎭川郡 草坪面 龍亭里 부창마을 서쪽 부창고개에서 「太和四年」의 造成銘文이 있는 磨崖佛立像을 조사한바 있다.

즉 檀國大學校 博物館에서 每年 실시하고 있는 全國郡單位 地域別 古蹟調査에 있어 昨年(一九七七年) 第十一次年度의 對象地가 忠北 鎭川郡 地域이었는데 例年과 같이 一月初에 一次踏査를 進행하던 중 一月初一日에 磨崖佛을 발견하였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 佛像은 造成年代가 뚜렷하며 아직까지 世上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 資料이므로 여기에 소개하려 한다.

磨崖佛이 위치한 곳은 鎭川邑에서 草坪面 所在地로 가는 도중 약 8km 되는 지점의 부창고개인데 이 고개를 넘으면 龍亭里 부창部落앞에 다다르게 된다. 佛像은 바로 이 부창고개를 넘기전 거의 고개마루에 이르는 왼쪽 岩壁에 彫刻되어 있다.

이 磨崖佛에 대해서는 東國輿地勝覽이나 鎭川郡·邑誌, 古蹟調査資料 등 어떤 記錄에도 없고 郡 당국의 여러人士, 有志, 古老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本調査團에서도 이 佛像의 발견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一月十一日 아침부터 筆者는 調査團을 이끌고 草坪面에 들러 관계자로부터 面內의 여러 遺蹟 遺物에 관한 事정을 들었는데 우리가 入手한 정보로써 指目하고 있는 遺蹟 遺物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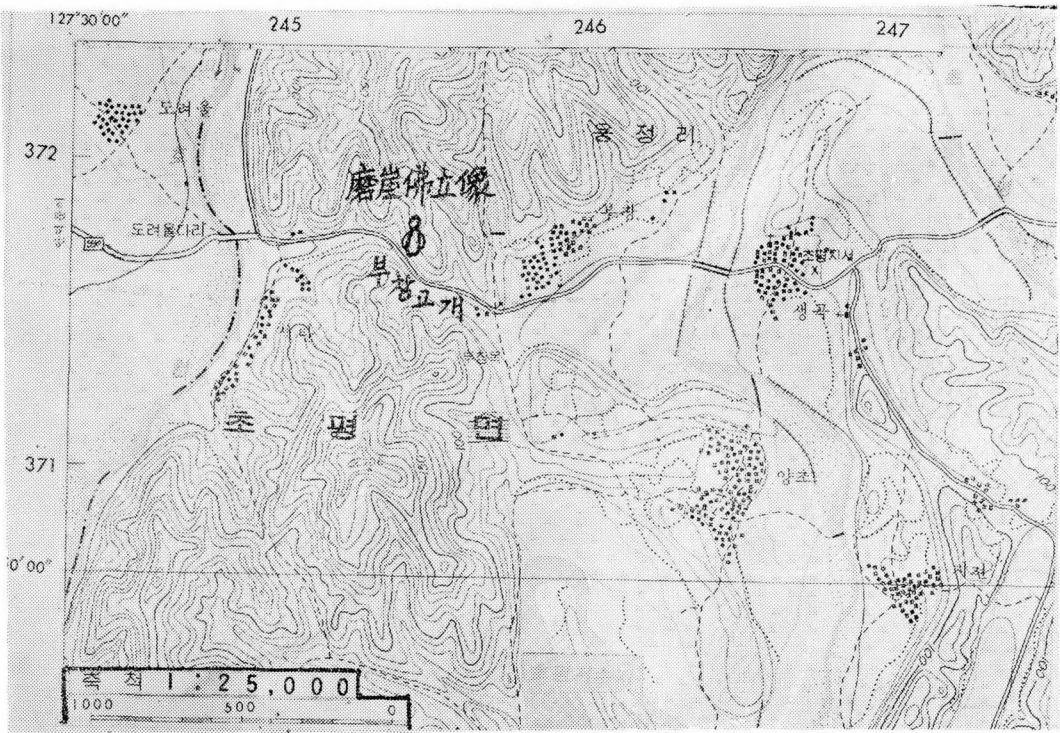


圖 1. 太和四年銘 磨崖佛立像의 位置圖

대로 龍亭里 甌山 느티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石佛立像과 支石墓 一基를 調査하고 돌아오는 길에 車內에서 鎭川郡 文化公報室의 朴技士와 주고 받은 말이 곧 이 磨崖佛 발견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즉 우리 一行이 地方踏査 때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운전하는 朴技士가 본래 鎭川사람으로 十여년간 郡內를 운전하고 다녀서 洞里, 部落할 것 없이 모르는 것이 없다 하기에 혹시 어떤 遺蹟 遺物을 본적이 없느냐는 말부터 對話가 시작 되었다. 그때 마침 草坪面所在地로부터 鎭川邑內로 들어갈려고 부창고개를 넘고 있었다. 筆者가 묻기를 「부창고개」가 왜 부창고개냐고 했더니 「부창이 고개」 「부처, 부처당고개」 등으로 불리운다고 하면서 무슨 이유가 있겠으나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대답에서 「부처, 부처당고개」라는 말이 귀에 솔깃하여 「부처당고개」는 곧 「불당고개」 「부처고개」가 아니냐고 되물었더니 朴技士는 아닌게 아니라 그렇게들 불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고개에는 반드시 「불당(佛堂)」이 있거나 「부처(佛像)」가 있을텐데 혹시 朴技士가 본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일은 없었다고 하였다. 이곳 사람인 朴技士가 모르는 일이라 하기에 그런줄 알고 있을수 밖에 없었으나 그래도 마을속으로는 언젠가 이 고개 어느곳에 佛像이 있었을텐데 하고 있는데 朴技士가 문득 생각 났다는듯이 「한 四(五)년전 일인데: 밤에 차를 몰고 고개를 넘는데 웬 女子 둘이서 바위 밑에 촛불을 켜놓고 손을 부비면서 절을 하고 치성을 드리는지: 밤중에 진짜 사람인지 혹은 여우가 덩겁을 했는지:」 하며 절절 웃어대기에 筆者는 차를 멈추도록 하고 朴技士로부터 지금 방금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보라고 하였다. 그 이야기들을 들은 뒤 그 女人들이 촛불켰던 자리를 알 수 있겠느냐고 다짐 하였다더니 대략 짐작한다고 하기에 차를 돌려 그 부창고개를 다시 가자고 부탁하였다. 거의 鎭川邑內 가까이에 왔었으나 우리의 부탁을 잘 들어 주어 차를 돌려서 부창고개까지 다시 와 고개마루 가까이에서 내려 그 촛불켰던 자리를 찾기 시작 하였는데 얼마후 고개 마루에서 鎭川邑內로 약 一〇〇m 내려오다가 오른쪽 바위암을 가리키면서 이 근처였다고



圖 2. 發見 당시의 磨崖佛立像(1977年 1月)



圖 4. 側面에서 본 磨崖佛立像(1977年1月)



圖 3. 正面에서 본 磨崖佛立像(1977年1月)

技士가 말하였다.

車道 바로 옆이어서 흙탕과 먼지가 뒤범벅이 되어 바위가 검은 색인지 진흙색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인데 岩壁을 자세히 살펴 보니 희미하게 무슨 彫刻이 있음이 분명하였다. 그리하여 一行은 장갑 낀 손으로 혹은 솔로 岩面의 흙탕과 먼지를 닦아 전체의 윤곽이 나타나도록 하였는데 곧 이 彫刻이 立像의 磨崖佛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立像 바로 옆의 岩壁에는 「太和四年」銘이 있어 바로 이 佛像의 造成年代임을 알 수 있었으니 鎭川의 「太和四年銘磨崖佛立像」은 이렇게 하여 發見調査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신중하게 생각 되는 것은 역시 우리나라 各地方의 洞名, 山號 등 各地方名이다. 이 고개를 「부창고개」 「부처당고개」 「불당고개」라 일컫는 것은 이 磨崖佛立像이 있기 때문인 것인데 그렇다면 이 고개의 이름은 千百餘年前 統一新羅時代부터 부처진 「부창고개」 「부처당고개」 등의 이름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처음 發見한 一月十一日은 날씨가 추워서 岩壁과 주변의 청소작업만으로 佛像의 윤곽을 뚜렷하게 할 뿐이었고 이후 三月下旬 第二次調査때 다시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이 윤곽이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拓本도 진행하였다.

二、

주변의 다른 岩面은 突出部가 있거나 破損부분이 많은데 佛像이 彫刻된 岩壁은 평평하고 破損도 심하지 않다. 正南에서 西쪽으로 약간 南西向의 岩面을 그대로 利用하여 彫刻하였으므로 佛像의 向도 따라서 南西向이다. 岩壁의 中心部에 舟形 擧身光의 형태로 內曲되게 다듬고 그 안에 立像을 陽刻하였으므로, 一見하여 알은 擧身光形龕室안에 佛像을 奉安한 것 같다. 擧身光은 上部에서 頭光部分을 나타낸 것 같으나 뚜렷하지 않고 上緣은 寶珠形이며 內曲된 內外面에는 아무런 彫飾도 없다.



圖 5. 太和四年銘 磨崖佛立像 拓本(1977年 3月)

佛像은 直立正面像의 如來像인데 頭頂部가 파손되어 유감스럽다. 머리는 素髮이며 그 위에 肉髻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 된다.

相好는 典形的인 新羅佛에서 볼 수 있는 圓滿하며 兩眼과 鼻樑 口唇 등이 整齊되었는데 전체적으로 磨損이 있다. 양쪽 귀는 어깨에 닿았으며 목에는 三道가 표시되었다.

通肩의 法衣는 가슴에서 양쪽 무릎에 이르기까지 큰 圓弧를 그리면서 내려졌고 그 밑으로는 裙衣의 주름이 垂直으로 표시 되었으며 그衣端 밑으로 양쪽발이 노출 되었다.

手印은 양쪽 팔을 그리로 늘어뜨려 양쪽으로 펼쳐진 法衣자락을 잡고 있는 것 같다.

臺座는 蓮華座로 큼직하게 마련하였는데 線刻으로 대략 윤곽을 잡아 놓고 그 안에 上·下로 仰·伏蓮을 彫刻하였는데 모두 單葉으로 보인다. 이 磨崖佛에서 注意를 끄는 것은 岩壁에 새겨진 銘文인데 佛像을 向하여 頭像오른쪽에 子徑十二cm 정도로 「彌勒佛」이라 刻字되어 있어 이 佛像을 당시에 彌勒佛로 彫刻 奉安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머리 외쪽 부분에는 「大和四年庚戌三月日成」이라 새겨져 있어 이 磨崖佛의 造成時期를 알 수 있는데 「太和四年庚戌」은 新羅興德王五年(八三〇A·D)에 해당한다.

이 銘文에 있어서는 모두 三行으로 수집자의 글짜가 새겨져 있고 그 중 末尾에 前記한 造成年代가 一行으로 刻字 되어 있다. 千百餘年間 風 磨雨洗된 岩面이므로 佛像도 銘文도 모두 磨損 되었으며 그리하여 造成年代만 겨우 判讀하였는데 앞으로 나머지 一,二行의 銘文까지 判讀하면 이 佛像의 造成緣記를 파악 할 수 있을것 같다. 글자는 대개徑四~五cm 의 크기로 楷書이다.

한편 佛像에서 注目해야 할 것은 蓮華座로 이루어진 臺座이다. 佛像은 內曲된 擧身光面內에 彫刻하고 臺座는 평평한 岩面보다 약간 두드러진 곳을 利用하였으므로 突出된 臺座로 보인다. 그리고 臺座의 윤곽을 線刻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方形으로 잡혀져 있다. 이것은 곧 方形臺座



圖 6. 磨崖佛立像의 「彌勒佛」銘 拓本 (1977年 3月)



圖 7. 造成緣記 銘文 拓本 (1977年 3月)

로 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岩壁의 크기는 넓이 一、八 m、높이 二、四 m이며 佛像各部의 實測值 (cm)는 다음과 같다.

○ 全高 一七〇、舉身光高一三四 廣幅八四、像高一一七 頭高二二 肩幅四
 胸幅二四、臺座高二二 幅六一 陽刻 四、五。

三、

鎮川郡은 新羅때 萬弩郡이라 하여 金舒玄이 萬弩郡 太守로 와 있을 때 金庚信 장군이 탄생한 곳으로 三國史記나 遺事、東國輿地勝覽 등의 옛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六 鎮川縣 山川條를 보면

吉祥山 一名 胎靈山 在縣西十五里 興寶蓮山相連 新羅眞平王時 萬弩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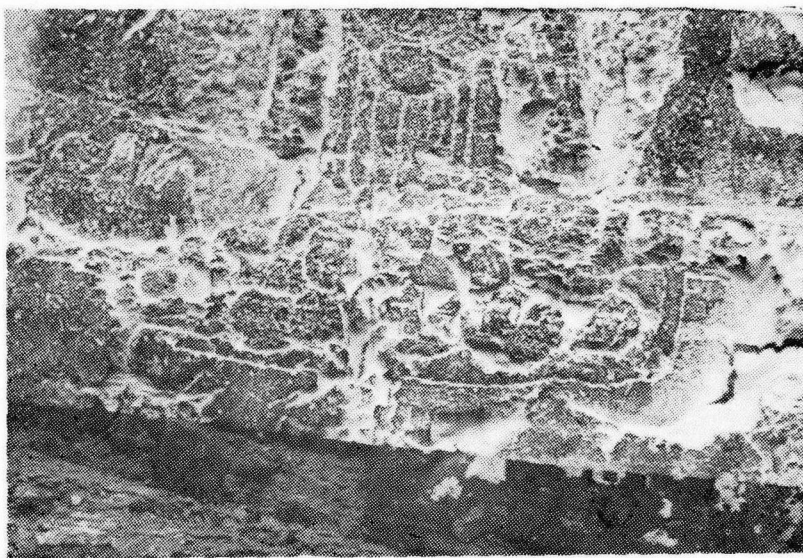


圖 8. 磨崖佛의 蓮華座 拓本 (1977年 3月)

太守金舒玄妻萬明 妊身二十月生子 曰庾信 藏胎於此山 因號吉祥
이라 있고 祠廟條에는

金庾信祠 在吉祥山 新羅時置祠宇 春秋降香祝 行祭 高麗仍之 至本朝
太祖八年 始停之 令所在官致祭

라 보이며 名宦條에는 新羅의 金舒玄、즉 金庾信장군의 父를 들고 있
다.

현재 鎭川郡內를 살펴 보면 邑內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都堂山城內에
吉祥祠가 있어 興武王 金庾信장군을 모시고 있으며 주위의 胎靈山 장수
굴 廣惠院의 花郎別 등 모든 遺蹟을 金庾信장군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
렇듯 유서 깊은 이곳에서 太和四年銘의 磨崖佛이 調査됨은 더욱 뜻있는
일이라 하겠으며 한편 이 佛像이 위치한 이 「부창고개」는 일찍부터 열
렸던 옛 新羅때 부터의 길목으로 당시 萬弩郡에서 曾坪쪽으로 通하는
要衝이 바로 이곳이었음을 짐작할 때 歷史地理的으로도注目되는 佛像
이요 地域이라 하겠다.

그리고 佛像자체에 있어서 대개의 磨崖佛의 경우 造成記가 없어 絶對
年代를 알 수 없어 推定年代를 말하고 있다. 新羅時代의 磨崖佛로 造成
年代가 뚜렷한 것은 慶南 咸安의 防禦山 磨崖佛(寶物 第一五九號)로 「貞
元十七年辛巳三月」의 造成記가 있어 新羅 哀莊王二年(八〇一A·D)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곳 鎭川의 磨崖佛은 이보다 三〇年이 뒤
진 것으로 絶對年代로써 다른 磨崖佛像의 造成年代를 推定하고 系譜
를 세우는 基準이 될 것임에 더욱 注目할 磨崖佛이라 하겠다.

(檀國大學校 博物館長)